벌교 참꼬막 캐기 한창

벌교읍 해도앞 갯벌에서 널배(1인용 목조배)를 이용한 꼬막 채취가 한창이다. 벌교읍과 대포리 갯벌 일대에서는 9일부터 '제 6회 벌교 참꼬막 축제'가 열려 널배 타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연합뉴스

화순 군민 70% "中·高 신설을"

학급수만 늘리려는 도교육청 방침에 76%가 반대

학교신설추진 조사委 1,600여명 설문

대다수 화순 군민들은 중·고등학교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 학교신설추진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에 걸쳐 화순읍 소재 8개 초·중·고 학부모 및 주민 1천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중·고교 신설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74.6%(1천225명)로 나타났다.

'화순읍에 중·고등학교를 새로 세우는 운동을 추진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설문에는 지지 의견이 70.3%(1천118명)를 차지했으며 반대 응답은 3.4%(57명)에 그쳤다.

또 '인구감소에 대비해 학급수만 늘리자'는 도 교육청 방침에 동의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6%(1천255명)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시설규모를 초과한 학교운영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특별실 부족과 기타 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0.3%(955명)를 차지했으며 37.7%(893명)가 '학습 및 생활지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답했다.

화순읍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인원의 50%(795명)를 차지한데 반해 '우수하다'와 '매우 우수하다'는 각각 6.8%(109명)와 0.3%(5명)에 머물렀다.

백남수 위원장은 "설문조사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화순읍 관내 학교 부족으로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남도 교육청과 화순군을 상대로 학교신설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 하멜전시관 기증품 잇따라

청화백자·아시아 고지도 등 50여점 확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강진 하멜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명지대 이태호 박물관장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창립 3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청화백자 접시〈사진〉 1점을 기증했다. 이 청화백자는 1919년에 제작된 직경 22.5cm 크기로 동인도 회사의 설립자 얼굴과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유홍준 문화재 청장도 아시아 고지도 2점을 기증했다. 1784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고지도는 가로 42cm, 세로 34㎝ 짜리와 가로 47㎝, 세로 32㎝ 크기로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산맥과 강, 항구 등이 상세히 표기돼 있다.

강진군도 전시유물 수집에 나서 네덜란드 호르큼 시에서 기증한 하멜 동상과 17세기에 사용됐던 대포, 하멜의 편지와 저서 등 50여 점을 확보했다. 전시관에는 조선후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 등도 함께 전시된다.

하멜전시관은 '하멜표류기'로 잘 알려진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일행이 7년간 머물렀던 강진 병영성 부근에 건립되며 400여㎡ 규모에 36억 원이 투입됐다.

개관식에는 한스 하인스브룩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비롯해 피트 아이슬스 네덜란드 호르큼 시장 등 네덜란드 사절단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올 마지막 단풍 해남 대흥사로 오세요

오늘부터 단풍축제 … 도립국악단 초청공연도

올 가을 마지막 단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흥사 단풍체험축제는 두륜산 십리 숲길의 오색단풍을 맞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9일에는 도립국악단 초청공연과 노래자랑이 펼쳐지며 10일에는 여성한마당 큰잔치, 추억의 7080 가을음악여행, 마지막인 11일에는 중국기예단과 남도전통품바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오색단풍과 시의 만남, 산사체험과 체험등반대회, 오색단풍 건강걷기 대회 등 특색있는 행사들도 마련된다.

두륜산 도립공원은 난대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흥사까지 4㎞에 이르는 숲터널은 최고의 산책로로 꼽히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해 난대림의 보고로 불리는 해남 두륜산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올 가을 마지막 단풍 축제가 열린다.

호남원예고, 농업 명문고 부상

특성화 학교 ·전문성 확대 … 신입생 대거 몰려

맞춤형 진로교육 … 3학년 전체 기능사 자격증

호남원예고등학교(교장 홍희준)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면서 신입생이 대거 몰리는 등 농업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 하고 있다.

지난 1946년 개교한 호남원예고등학교는 그동안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매년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과를 대폭 개편했고 내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96명 정원에 124명이 물렸다.

호남원예고는 바이오생명과학과를 비롯해 화훼장식조경과 및 생물산업정보과,식품가공과 등의 학과를 개설, 관련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사회가 요구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학년 진급시 일정 범위내에서 학과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차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특성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결과 3학년 학생 전체가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전남기능경기대회 농기계수리분야에서 금상, 요리분야 은상을 수상했다.

또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는 1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3명이 동상을 수상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영광 불갑 저수지 테마공원 조성

불갑사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영광군 불갑 저수지 일대에 테마 공원이 조성된다.

영광군은 최근 불갑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 중간 설명회를 열고 시행처인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로부터 추진 경과 보고를 청취했다.

농촌공사에 따르면 불갑저수지 수변 지역에는 200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을 들여 연꽃방죽과 수변생태시설, 산책로, 주차장, 휴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인근에 있는 불갑사 유적지 등과 어우러져 새로운 서해안 관광 및 레저 벨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테마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서 영광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민 수익도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나주시 올 상품권 판매
10억원 넘어섰다

나주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실적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나주시는 지난 2월 1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9월에도 5억 원 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동안 꾸준히 판매되면서 최근 판매고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상품권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은 할인율 적용 등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공무원 재래시장 장보기, 성과 상여금의 상품권 지급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나주시는 전자 상품권 개발과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제공 등 지속적인 판매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